전남 서·남해안 사막으로 바뀌고 있다

■ 해수부, 전국 연안 갯녹음 실태조사

6년 새 축구장 1200개 달하는 900ha '바다사막화'

생태계 붕괴 어획량 감소…'바다 숲 조성' 사업 절실

지구 온난화의 재앙이 전남 서·남해안을 덮치고 있다. 온난화로 인한 해수 온도 상승으로 전남 서·남해 바닷속이 갯녹음(바다 사막화)으로 황폐화되고 있는 것이다. 2004년까지도 발견되지 않았던 갯녹음 현상은 전남 바다 곳곳으로 확산한 상황으로, 매년 꾸준히 늘어나고 있다는 점에서 심각하게 받아들여지고 있다.

22일 해양수산부가 내놓은 '전국 연안 갯녹음 실태조사'에 따르면 서·남해안 바다 900ha에 걸쳐 갯녹음 현상이 관측됐다는 것이다. 동해, 제주 해역을 포함하면 국내 연안 갯녹음 발생 면적은 1만4317ha(약 4330만평)로 지난 2004년 6954ha(약 2100만평)에 비해 2배 이상 늘어났다.

이번 조사는 한국수자원관리공단이 지난 2010년 국내 바다 주요 암반 지역 7919ha를 대상으로 '갯녹음 발생 면적'을 조사한 것으로, 정부는 지난 2004년 이후 5년마다 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조사 결과, 무안·영광·신안 등 서해안 연안 갯녹음 피해 면적은 158ha에 달했고 여수 등 남해안에서는 753ha에서 갯녹음이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다. 온난화로 인한 해수온도 상승으로 인해 매년 갯녹음 피해 면적도 1200ha(약 360만평)씩 증가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서·남해안의 경우 지난 2004년 조사 때만 해도 발견되지 않았지만 5년 뒤인 2010년에는 갯녹음 피해 면적이 발생했다는 게 해수부 설명이다. 축구장(0.7ha) 1200개에 달하는 바다가 6년 만에 '사막'으로 바뀌었다는 얘기다.

이는 국립수산과학원 남해수산연구소가 지난 2009년 조사했던 여수·고흥·완도·신안·진도 연안의 갯녹음 발생 면적보다도 높은 수치다.

당시 남해수산연구소는 여수(175ha)·고흥(125ha)·완도(92ha)·진도(238ha)·신안(25ha) 등 전남 지역 연안의 갯녹음 피해 면적을 655ha로 추정했다. 특히 해수부 조사가 주요 암반지역을 대상으로 한 조사인 것을 고려하면 실제 피해 면적은 훨씬 넓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는데다, 매년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는 점에서 대책 마련이 절실히 요구되는 상황이다.

전문가들은 최근 30년간 바다 표층 수온이 남해의 경우 1.04도, 서해는 0.97도 오르는 등 온난화로 인해 해수 온도가 상승하면서 갯녹음 현상도 불가피하다는 점에서 바다 숲 조성 등 바다 생태계 보호를 위한 활동을 서둘러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해양수산부 관계자는 "국내 갯녹음 지역 어획 감소량이 정상 어장에 비해 40%에 이르는데, 연간 650억원의 피해를 주는 것"이라며 "사막에 나무를 심듯 갯녹음 방지를 위해 2030년까지 3만5000ha의 바다 숲 조성 사업을 추진중"이라고 말했다.

/박정렬기자 halo@kwangju.co.kr

수능 원서접수 시작

22일부터 2014년 대학수학능력시험 원서접수가 시작됐다. 이날 오후 수험생들이 광주시교육청에서 원서를 작성하고 있다. 원서 마감은 다음달 6일이다.

/나명주기자 mjna@kwangju.co.kr

'원전비리' 박영준 전 차관 다음주 검찰 소환

이명박 정부의 실세로 꼽히는 박영준(53) 전 지식경제부 차관이 원전비리 사건과 관련해 다음 주 초 검찰에 전격 소환된다.

박 전 차관은 이른바 '영포라인' 출신 브로커 오희택(55·구속)씨가 한국정수공업 대표에게 "아랍에미리트(UAE) 원전의 수처리 설비 수주를 위해 로비해야 한다"면서 13억원을 받는 과정에 로비 대상으로 지목한 인물이다. 영포라인은 이명박 전 대통령과 같은 경북 영일, 포항 지역 출신 인사들을 일컫는다. 이에 따라 원전비리 수사가 '게이트 사정'이 될 것이라는 관측이 현실화돼 상당한 파장이 예상된다.

부산지검 동부지청 원전비리 수사단은 22일 박 전 차관을 조사할 필요가 있어서 법무부에 서울구소치소에 수감 중인 박 전 차관의 이감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박 전 차관이 부산구치소로 이감되면 다음주 초 소환해 조사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연합뉴스

고속도로 화물차 사고 '치명적'

100건당 16.5명 꼴 사망

고속도로에서 화물차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100건당 무려 16.5명이 사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통안전공단은 2010~2012년 발생한 화물차와 버스, 렌터카, 택시 등 사업용 자동차의 교통사고를 분석한 결과 고속도로에서 일어난 화물차 교통사고의 치사율이 16.5로 나타났다고 22일 밝혔다. 치사율은 사고 100건당 사망자 수를 나타낸 것이다.

같은 화물차 사고라도 고속도로가 치사율이 16.5로 가장 높았고, 일반국도(6.1), 지방도(5.5), 특별광역시도(2.4), 시군도(2.9) 순으로 나타났다.

차종별로 봐도 화물차의 치사율이 가장 높았다. 화물차 사고 전체의 치사율은 4.4, 버스는 2.6, 렌터카는 1.8, 개인택시는 1.4, 법인택시는 0.9였다.

교통안전공단은 최근 잦은 화물차 사고의 주원인으로 졸음운전을 지목하고 운전자들의 주의를 당부했다.

공단은 경찰, 지방자치단체와 합동으로 고속도로 요금소나 휴게소에서 화물차를 대상으로 최고속도제한장치 부착 등을 확인하는 안전점검을 강화할 예정이다. /연합뉴스

근로정신대 피해 할머니 오늘 광주서 손배訴 재판

일제 69년전 동원령 공포…日 시민단체 관계자 참관

1944년 8월 23일. 일본 후생성은 여자정신대근로령을 공포하고 시행에 들어갔다.

이후 무수한 한국 여성들이 끌려가 모진 고통을 받았고 현재 한국 정부에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로 등록한 사람만 236명. 현재 생존자는 56명이다.

69년이 흐른 23일 광주에서 근로정신대 피해 할머니들이 낸 재판이 열리고 이들 피해 할머니들의 손해배상 소송을 지원해 온 일본 시민단체 관계자들이 재판을 참관한다.

22일 '근로정신대 할머니와 함께 하는 시민모임'에 따르면 근로정신대 피해 할머니들의 소송을 돕는 일본측 지원단체인 '나고야 미쓰비시 조선여자근로정신대 소송을 지원하는 모임'(이하 나고야 소송 지원회)이 23일 재판을 참관하기 위해 광주를 찾는다는 것이다.

나고야 소송 지원회의 공동대표 다카하시 마코토, 테라오 테루미 등 관계자 9명은 23일 오전 10시 광주지법 204호 법정에서 열리는 3차 심리에 피해할머니들과 함께 참관하고 이후 기자 회견을 연다.

재판 초기부터 할머니들을 지원해 온 나고야 소송지원회는 재판이 열린 이래 처음으로 광주를 방문해 피해할머니들에 힘을 실어줄 전망이다.

/박정렬기자 halo@kwangju.c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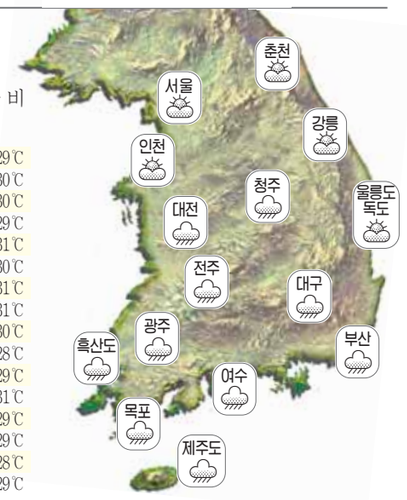
오늘 날씨

해뜸 05시 58분 / 해짐 19시 12분 / 달뜸 20시 18분 / 달짐 08시 07분

폭염 탈출

대체로 흐린 가운데 강한 비 내리는 곳 있겠다.

광 주	비	26/29℃
목 포	비	26/30℃
여 수	비	25/30℃
나 주	비	25/29℃
완 도	비	26/31℃
구 례	비	26/30℃
강 진	비	26/31℃
해 남	비	26/31℃
장 흥	비	26/30℃
순 천	비	25/28℃
영 광	비	26/29℃
진 도	비	26/31℃
전 주	비	26/29℃
군 산	비	25/29℃
남 원	비	25/28℃
흑산도	비	25/29℃



〈오전〉 바다 | 풍향 | 파고
- 서해 남부 앞바다 | 남동~남 | 0.5~1.5m
- 서해 남부 먼바다 | 남동~남 | 1.0~2.5m
- 남해 서부 앞바다 | 남~남서 | 1.0~2.0m
- 남해 서부 먼바다 | 남~남서 | 1.5~2.5m

〈오후〉 바다 | 풍향 | 파고
- 서해 남부 앞바다 | 남~남서 | 0.5~1.0m
- 서해 남부 먼바다 | 남~남서 | 1.0~2.5m
- 남해 서부 앞바다 | 남~남서 | 0.5~1.5m
- 남해 서부 먼바다 | 남~남서 | 1.0~2.0m

식중독지수 / 자외선지수 / 불쾌지수: 위험 / 보통 / 매우높음

	밀물	썰물
목포	03:39 / 15:52	08:45 / 20:58
여수	10:27 / 22:50	04:13 / 16:23

◇주간날씨 — 기상안내전화 : 국번없이 131 〈광주지방기상청〉

날 짜	24(토)	25(일)	26(월)	27(화)	28(수)	29(목)
날 씨						
최저/최고	24/29	26/31	23/31	23/32	22/31	22/29

오늘 처서…가을이 성큼

광주·전남 무더위 쫓는 비

가을에 들어가는 절기인 처서(處暑)부터 주말까지 광주·전남지역에 무더위를 쫓아줄 반가운 비가 내리겠다.

광주지방기상청은 처서인 23일에는 기압골의 영향으로 흐린 가운데 광주·전남 대부분 지역에 비가 내리겠고, 오후부터 다음날인 24일까지 지역에 따라 천둥, 번개를 동반한 시간당 50㎜ 이상의 많은 비가 내리는 곳이 있을 것으로 22일 전망했다.

비로 인해 광주·전남지역 최고 기온은 다소 낮아졌다가, 25일부터 다시 기온이 오르면서 열대야가 나타나는 곳이 있겠다고 기상청은 내다봤다.

기상청은 22일 오후 4시30분을 기해 광주·전남 21개 시·군에 내려진 폭염 경보와 주의보를 모두 해제했다. 한편 22일 오후 6시까지 여수 75.5㎜, 광양 52.2㎜, 영광 23.5㎜ 등 광주·전남 곳곳에 폭염을 식혀주는 단비가 내렸다.

/박정렬기자 halo@kwangju.co.kr

광주·전남 을지연습 '끝'

주민 참여 테러대응훈련 등

광주시, 전남도 등 자치단체와 공공기관이 국가비상사태 시 국민 위기관리 능력을 키우기 위해 19일~22일 실제훈련 위주로 실시한 2013을지연습이 마무리됐다.

이번 을지연습은 한반도 안보환경에 맞는 실전적인 훈련을 통해 완벽한 비상 대비태세 확립을 목표로, 주민이 참여하는 실제훈련과 사이버테러 및 후방지역 테러대응훈련, 시민안보의식 고취 강화에 중점을 두고 실시됐다.

/홍행기기자 redplane@kwangju.co.kr

인터넷에서 만나는 광주일보
www.kwangju.co.kr

세기보청기

세기의 무대는 세계입니다!

탁월하지 않으면 세계를 이길 수 없습니다.
세기보청기는 누구도 따라 올 수 없는 완벽한 기술력을 모두 갖추었습니다.
이제 세기보청기가 여러분을 행복 속으로 모시겠습니다.

대한민국 대표보청기-
세기스타·세기보청기
www.segistar.co.kr

전국 점망
서울 삼일로점(탑골공원 삼일로 입구):02)2276-0687~9 강남점(강남고속터미널 앞):02)3477-5110 종로27점(금강제화 옆):02)733-0220 송파점(석촌역 2번 출구):02)419-3388 선릉점(선릉역 2번 출구):02)985-1838 **경기** 인천점(구.시민회관 앞):032)421-2288 부평점(부평역앞):032)517-5110 수원점(남문 옆):031)246-5110 의정부점(포천로타리 홍국생명 앞):031)821-6655 안양점(벽산스꾀2001 아울렛 앞):031)469-0110~1 평택점(평택역 앞):031)658-5110 용인점(용인네거리):031)336-1090 오산점(국민은행 2층):031)378-4183 부천점(롯데백화점 옆):032)329-4400 남양주점(평내 호평역 앞):070)8829-9903 **부산** 서면점(서면로타리):051)818-8800 서면2점 818-0016 남포동점(부영극장 앞):051)256-7200 **울산** 울산점(공업탑로타리):052)288-2283 **경남** 마산점(마산역 앞):055)297-6060 진주점(중앙로타리 옆):055)745-9870 **대구** 동인점(동인네거리):053)425-4440 삼덕점(삼덕네거리):053)426-1511 남일동점(이카데미극장 옆):053)425-7575 **경북** 포항점(육거리):054)244-5110 안동점(구 안동농고네거리):054)859-2248 **광주** 광주점(금남로 47역 사거리):062)225-5110 광주점(백운광장):062)651-4477 **전남** 순천점(중앙사거리 지하상가입구):061)752-8845 **전북** 전주점(진북로타리):063)252-5728 군산점(구 시청정문 옆):063)446-0198 익산점(북부시장네거리):063)838-5600 남원점(시장네거리):063)632-2626 **대전** 대전점(도청 앞):042)254-5110 대전점(중촌로타리):042)222-3388 대전점 대전역 앞:042)255-4900 **충남** 천안점(천안역 앞):041)553-2888 공주점(공주군사거리):041)852-5110 **충북** 청주점(현.까르프 구.속리산고속 맞은편):043)222-1177~8 충주점(심원로타리):043)852-1414 **강원** 강릉점(옥천오거리):033)647-0688 춘천점(팔호광장 앞):033)253-5110 **제주** 제주점(광양로타리):064)753-4388

세계적 권위의 인증! FDA허가!
미국 식품의약국 FDA허가 인증 / 국제품질 ISO 9001인증 / 국제의료기품질 ISO 13485인증 / 유럽공동체 CE마크 인증 / 의료용구 제조업체

상담전화
1588-8499/080-222-0100
세기보청기 대리점 사업본부 문의전화 02)538-9388

■ 광주점[금남로 47역 사거리] 세기보청기 — 문의전화 (062)225-5110
■ 광주점[백운광장] 세기보청기 — 문의전화 (062)651-4477
■ 순천점 세기보청기 — 문의전화 (061)752-8845